

指空研究의 現況과 活用方案

허흥식(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학계열 교수)

T/o; 0342-709-9107 T/h; 02-3461-4663

Hp; 016-9277-4663. Email;heohs@aks.ac.hr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서울대 사학과 및 동 대학원 국사학과 졸업(문학박사). 경북대 교수, 나폴리동양학대학과 칼리포니아대학 초빙교수, 북경대 교환교수 역임, {고려과거제도사연구} {고려사회사연구} {고려불교사연구}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진정국사와 호산록} {한국의 고문서} {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그밖에 고려의 書誌와 金石文, 蒙山德異, 雲南民族文化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음.

## The Study on Dhyana-bhadra and Its Utility

By Heo Heung-Sik

머리말

지공은 14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한 인도출신의 고승이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나란다사에서 10여년간 經律과 다양한 북인도의 사상을 공부하였고, 스리랑카에서 참선을 통하여 득도하였으며, 티벳을 거쳐 燕都에 들어왔으나 수년간 오늘날의 泗川과 雲南에서 여러 민족을 교화하였다. 그가 양자강과 대운하를 거쳐 연도로 들어가 잠시 머문 다음, 고려로 옮겨 3년 가까이 교화하고 연도로 다시 돌아가 35년간 생존하였고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지공의 특이한 경력과 사상은 14세기 인도의 사상사는 물론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사상사와 민족사의 연구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지공의 중요성은 국내외의 학자의 다방면으로 연구를 진척시켰고, 그에 관한 학술회의도 국내의 檜巖寺에서 三和尚의 한 분으로 주목되었으며, 그의 사상과 유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이 글은 1997년 한국조계종 총무원과 운남성 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韓中指空國際學術會議를 중심으로 삼고, 이후의 연구와 남은 과제를 합쳐서 살피고자 한다.

1997년 8월 10일부터 중국 雲南省 社會科學院에서 主管하여 2일간 한중지공학술회를 개최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해 말에는 중국에서 指空研究를 촉진시킨 북경민족대학 祁慶富교수를 만나서 운남성의 연구현황과 열성을 들었다. 97년 3월에는 奉先寺교무를 담당한 默庵光賢 스님과 운남성

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원장 何耀華교수와 종교연구소 楊學政소장을 만나 학술회의의 제반 준비를 위한 예비조사와 협약을 맺었다.

정작 학술회의에서 중국에서 학술회의를 뒷받침한 기경부교수와 한국의 목암스님이 사정으로 불참하여 필자만이 이를 기획하고 마치기까지 참여한 증인이었다. 필자는 같은 해 말에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모은 자료집을 받아서 다음해 1월 5일 우리측의 단장을 받았던 조계종교육원장 性陀스님에게 전하였다. 1998년 필자는 북경대학에 1년간 머무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공이 지나거나 머물렀던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답사하였고, 운남성에도 두 차례에 걸쳐 날짜로는 거의 한 달간 머물면서 지공이 교화했던 지역을 답사하고, 그곳의 연구상황을 살폈다.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국제학술학술회의가 있었던 1998년 연말 何耀華 사회과학원장과 楊學政 종교연구소장으로부터 동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종교연구에 회의를 요약하여 소개한 글과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몇 편의 글을 수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1999년 북경대학을 떠나 귀국하기 앞서 8월초에 운남성 사회과학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3일에는 연구소의 학자 17인과 지공연구의 한국내 연구상황과 남은 쟁점을 요약하여 발표하면서, 도합 3시간 정도 의견을 나누었다. 운남성의 지공에 대한 관심과 한국이나 북경에서 다시 학술회의가 개최되도록 협력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필자는 1999년 8월말 귀국하여 회암사의 주지 仁默스님에게 그동안 중국에서 지공에 대한 연구를 전화로 알리고 국내에서 간행된 三大和尚研究論文集 제2집을 기증 받아 그동안 국내의 연구상황과 학술회의에서 발표했던 운남성 학자의 논문도 실렸음을 확인하였다. 대체로 운남성의 학자의 글은 그대로였으나 국내 학자의 글은 발표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였고, 그밖에도 나옹과 자초에 관한 논문을 추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운남성 사회과학원에서 열렸던 국제학술회의의 경위와 당시에 수렴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후에 국내외에서 진전된 연구결과를 아울러 소개하면서 앞으로 초점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異見을 중심으로 쟁점과 새로운 연구방향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 1. 1997년 韓中指空學術會議 經緯와 背景

운남성은 중국에서 기후와 자원이 우수하면서도 서부에 위치한 오지로서 개발이 늦었다. 鄧小平의 집권이래 시작된 개방과 개혁의 바람은 이곳에도 늦게나마 불어왔고, 지공이 활동한 正續寺에도 들이닥쳤다. 이 절은 운남성의 중심지인 昆明에서 북북서에 위치한 楚雄彝族自治州的 武定縣의 북쪽의 獅山에 자리잡고 있으며, 곤명에서 泗川으로 나아가는 목 줄기와 같은 지역이다. 본래 사천은 三國志演義에서 蜀漢의 중심이었듯이 중국을 三分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고, 배후지로 운남을 확보하기 위하여 諸葛亮이 猛獲을 七縱七擒하였다고 전하듯이 이민족을 정복하고 심복시키기 위하여 무력과 기다림이 참을성 있게 점철된 유서 깊은 전통성이 있다.

中原이 西安과 洛陽을 의미한다면 황하의 상류와 하류는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여기에 江南과 泗川을 확보하면 천하를 장악했다고 공언하였다. 운남은 천하를 장악한 다음 단계의 완성을 위해 확대되는 지점으로 주로 사천의 확장선상에서 파악된다. 이는 공산당 중국의 통일과정에서도 이 지역이 1952 이년어야 공산화되었을 정도로 국민당 정부에게는 대만과 더불어 제 2의 보루였던 현대사에서도 재확인된다.

운남은 소수민족의 무대이고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되었던 원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土司"라 불리는 酋長이 행정을 장악하고 군사권만 漢族에게 유보한 상태였다. 운남지역과 중국화과정은 사천의 漢族이 담당하였다. 운남의 지배층은 사천으로 자제를 유학을 보냈고, 사천의 지식인이 이곳에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원이 운남을 장악한 다음 사천의 지식인이 이곳을 활동무대로 옮겨왔고, 지공이 蜀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활동무대로 삼은 경위도 같은 맥락을 이해된다.

운남성은 武定縣 獅山을 觀光特別區로 지정하였다. 운남은 문화혁명의 바람도 공산화나 개혁개방과 마찬가지로 延着하였고 이 때문에 이 지역 소수민족은 다른 지역보다 보수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였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게 파괴당하였다. 운남성 정부가 종교시설의 하나인 正續寺를 복원하고 指空塔을 세우며 불교와 관련된 이번 학술회의를 허가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도 사천에서 운남을 거쳐 치앙마이를 통하여 방콕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하려는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

학술회의는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지공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롯되었다. 필자는 1994 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하기한국문화강좌에 참가한 북경중앙민족대학 기경부교수를 만나 그가 전공하는 중국서남지역에 지공이 교화한 사실을 문의하였고, 그는 귀국한 다음 운남성의 지지에서 사산정속사비를 찾아 이를 필자에게 보내왔다. 필자는 중국에도 지공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도록 자료를 논문으로 정리하도록 부탁하고, 이를 번역하여 伽山學報에 발표하였고 한편 운남성 사회과학원에도 이를 실었다.

운남성에서는 이를 기회로 사산정속사를 관광지로 정비하고 지공의 부도탑과 정속사비를 세웠다. 1997 년은 운남성에서 "관광의 해"로 정하고 학술회의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국의 조계종총무원에서는 지공에 관한 운남성사회과학원의 적극성을 높이 평가하고 총무원과 지공의 기념사원이었던 회암사의 본사인 봉선사에서 학술회의를 지원하였다.

운남성에서는 副省長과 黨副書記가 참석자로 요인이었고, 社會科學院의 院長을 위시한 소속 宗教研究所와 歷史研究所의 學者와 外事處 辦公室의 임원이 학술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학술적으로는 원장과 부원장은 물론 종교연구소와 역사연구소의 소장과 교수 및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그밖에 운남대학의 교수와 楚雄市의 간부, 종교단체의 담당자가 학자로 참가하였으나 논문은 사회과학원 교수의 수준이 주도적이었다.

운남성에서는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학술과 관광을 결들여 輿地의 개방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나타났다. 또한 운남성에서는 불교를 우대하고 "97년 관광의 해"에 불교를 이용하여 관광을 유치하려는 의욕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운남성의 태도는 불교를 내세워 문화교류와 관광사업, 그리고 경제개발로 발전을 모색하였으며 그들의 염원은 이러한 순서의 역순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의 참가자도 이를 예상하였으나 불교와 학술교류가 우선이었고 앞으로 경제인의 합작도 예상하고 있었다.

학술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남성은 종교의 하나인 불교를 지원한 셈이고, 한국에서 학술회의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주의를 지속한 중국정부로는 과격적이었다. 필자가 운남성 사회과학원과 학술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몇 차례의 어려움도 종교에 대한 습관화된 탄압의 태도였다. 중국의 당국은 이번 회의를 불교행사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학술회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학술적 성과는 운남성 사회과학원에 소속한 교수와 연구원의 발표였다. 이들은 지공의 비문에서 중국과 관련된 시향을 검증하고 지공이 운남지역에서 펼친 교화활동의 확인이었다. 특히 獅山 正續寺와 관련시킨 지공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行錄을 인용한 이색의 비문에 실리지 않았고 오로지 원대의 楊興賢이 남긴 獅山正續寺記에만 수록되었으며 이를 이 지역의 彝族 土司와 관련시킨 연구가 돋보였다.

獅山正續寺記는 이 지역 토사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 인용되었으나 당시 지공이란 고승의 활동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후에 지공에 관한 한국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이 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색의 비문에서 중국에 유력과 활동을 다각도로 검증한 연구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촉발되어 운남성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장이 직접 논문을 쓰고 연구원을 집중적으로 참여시켜 지공은 물론 그가 관련된 정속사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한 특집호를 간행하였다. 특집호에는 많은 연구자가 참여함으로써 지공연구의 중심이 한국에서 운남성으로 옮겨진 분위기였다.

운남성에서는 正續寺와 이를 품고 있는 獅山一帶를 觀光特別區로 설정하고 獅子山賓館(호텔)을 지었으며, 운남성 사회과학원은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으로 연결시키려는 학술회의를 1996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곳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보고서는 사회과학원 학자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한 省政府와 楚雄市 武定縣에 이르는 당과 행정부서 간부들의 글과 참가자 명단은 물론 사진까지 곁들인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나 이를 복사하여 다량으로 제작하지 않았다.

필자는 중국의 개방화 정책은 동아시아의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이고, 한국은 분단의 멍에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금세기에 동아시아에 불행을 주었던 일본보다 우호적인 협력이 가능하리라 확신하였다. 학술대회는 운남의 개방과 경제개발을 위한 전초사업으로 계획되었고 한국의 지원과 참여로 내실을 다졌다고 하겠다. 한국의 참가자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양국의 학술교류를 시작으로 중국 측의 한국의 관심과 문화교류가 확대되리라 기대하였다.

## 2. 指空研究의 現況과 자리매김

1997년 학술회의의 꽃은 연구 논문이었다. 이 가운데 우수한 내용도 많았으나 수준 미달의 논문도 적지 않았다. 운남성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에서는 앞서 1995년에 지공을 특집호로 학술지를 간행하였고, 여기에는 지공에 관한 연구와 현지조사 및 자료를 실었으나 운남지역을 주로 다루었고,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또한 운남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음해인 1996년 11월 12일부터 2일간 지공에 관한 학술회의를 열었고, 그때 발표한 논문에서 이번 학술회의 발표자를 엄선하였으므로 같은 주제로 3번씩 발표하는 학자가 포함되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거쳤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5인의 발표자 가운데 필자와 이병옥을 제외한 4인은 지공에 관해서 최초로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검토와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다소 불안감이 있었다. 다만 한국내에 문헌자료와 유적과 유물이 중국보다 풍부하고, 학술지를 통하여 중국에서 간행된 모든 논문은 이미 철저하게 소개하였으므로 다소 안심되었다.

발표회에서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었고 소수의 의견이나마 새롭게 제시된 견해도 있었다. 발표자별로 내용상 주목할 만한 견해를 소개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주제별로 견해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지공에 관한 자료와 기왕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중국측에 심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폐쇄된 사회였으므로 국외의 학술지와 서적이 수입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짐작되었다. 중국보다 여건이 좋았던 국내 학자의 발표에서도 기존의 논문과 자료를 간과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

발표내용 가운데서 지공의 속명과 범명, 그리고 箇(號)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쉬웠다. 특히 범어와 音寫漢字와 漢語의 해석에 대해서 좀더 깊은 천착이 필요하였다. 指空은 號이고 漢譯이며 로마자화한 산스크리트어로는

Sunyadiya 이며, 梵語音寫는 蘇那的沙野이다. 그는 호를 그의 스승인 랑카의 普明으로부터 받았다.

그의 法名은 提納薄曠 이다."提納"의 발음은 "다나"에 가깝다는 현존 禪要錄에서 확인된다. 이는 로마자화한 범어로는 Dhyana-bhadra 이고 漢譯은 禪賢이다. 禪賢을 安心寺舍利石鐘記에는 "善賢"으로 쓰였으며 잘못으로 추측된다. 그의 法名은 나란다에 출가하여 수계를 받은 다음부터 사용하였으며 律賢이 부여하였다고 짐작된다. 그의 俗名은 庠恒羅販婆였으며 梵語音寫라고 하겠으나 의미에 대해서 아직 漢字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출가전에는 속명이 불렸고, 출가하여 수계한 다음부터 法名이 사용되었고, 득도한 다음에는 호가 널리 쓰였다고 하겠다.

지공의 출생년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雲南悟는 장님이었고 말은 할 수 있었으나 7 세에 출가했을 때 이미 지공의 나이는 61 세였고, 오가 75 세였을 때 입적했다고 하였다. 지공의 입적한 연대가 1363 년임에는 異論이 없으므로 128 세까지 생존하였고 1236 년에 출생하였다. 이는 인간의 수명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가장 정평있는 사전에는 출생년대 미상으로 실려있다. 비문의 운남오를 무시하고 75 세로 계산한 禪學大辭典이 있고 이를 따르는 佛光大辭典 등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1289 년에 출생하였다. 또한 108 세를 살았다는 庚申外史와 300 세 이상을 살았다고 전하는 宋濂의 文集 등이 있다. 필자는 그가 20 세에 스리랑카를 떠나 곳곳에서 머문시기와 白雲和尚語錄에 의하여 64 세에 입적하였다고 계산하였다. 그의 출생년대에 대해서는 중국에 도착한 시기와 연결시키면서 깊이 있게 검토되었다.

위의 여러 견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1300 년설과 1289 년설을 중점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인간의 수명으로도 개연성이 있고 이에 뒷받침한 자료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1289 년설은 기존의 사전뿐 아니라 사산정속사기를 이용하면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았다. 1300 년설은 지공의 유력한 시기와 경한의 백운화상어록에 의하여 필자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국내의 학자들이 따른 예가 많으나 좀더 새로운 근거는 보충하지 못하였다.

1289 년설은 이색이 쓴 지공의 비문에도 운남오가 75 세였을 때 지공이 입적하였다고 기록되었을 뿐 지공이 75 세라는 뜻은 아니므로 문제가 있다. 다만 이색은 비문을 지을 당시 건강이 나빴으므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75 세는 126 세보다 인간의 수명으로 개연성이 있다. 중국측에서는 75 세설이 실린 대만에서 편찬된 불광사전만 언급하였으나 일본의 선학대사전을 답습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특히 사산정속사비의 내용을 근거로 지공이 1315 년부터 1320 년까지 정속사를 중창하였다고 해석하고 필자의 64 세설을 따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된 이래 75 세설을 증명하려는 운남의 학자들이 이를 따르는 학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공이 중국에 도착한 시기에 대해서는 출생연대와 다름없이 연구자에 따라서 견해가 엇갈린다. 필자는 백운화상어록과 그의 비문에 실린 행록에 의하여 1320년에 동방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동방에 도착하였다는 중국의 위치는 티베트라 하겠으며 이를 따르면 21세였고 1320년에 해당된다. 초기의 중국학자들은 지공이 중국에 처음 도착한 시기를 필자와 같은 견해로 잡기도 있었으나 사상정속사기에 의하여 1315년부터 20년까지 정속사건물을 창건하였다는 해석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로 올려 잡았다.

사산정속사기에 의하여 지공의 정속사 중창하였다는 해석은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지공이 蜀보다는 운남에서 오래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5년이나 정속사에 머물면서 더구나 정속사를 중창하였을 정도라면 이색의 비문에 정속사가 수록되지 않았을 까닭이 없다. 또 하나 지공은 고려에 오기까지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사원을 중창하는 불사를 지휘할 정도의 실천적인 경향이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지 않는다. 고려의 회암사를 중창하였다고 해석한 학자도 있으나 점지만 하였을 뿐 전혀 중창불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수도한 그의 속성으로 불사에 손댈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운 소극성이 있었다.

사산정속사기에 의하면 朝宗이 불사를 담당하였고 지공의 도력에 감화를 받은 지방관이 불량을 지원하여 흠어지지 않도록 기금을 마련한 사실을 밝힌 내용이고, 비읍기는 전혀 남지 않았다. 비의 건립연대도 비의 내용을 참작하여 후에 1320년에 세웠다고 地誌에 정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후에 건립되었다고 추측된다. 사산 정속사기에 따라 지공이 1315년부터 1320년까지 정속사기를 중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조종의 불사로 해석해야 다당하다고 하겠다.

지공의 출생연대는 부도비나 사산정속사기로도 확정하기가 어려우나 그가 만났던 인물과 관직명, 지명 등으로도 방증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도착한 시기를 1320년 전후로 확정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된다. 지공과 접촉이 있었던 安西王이나 淮西寬, 그리고 太子燕 등을 검증하여 연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역시 이론이 분분한 형편이다. 운남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지명과 인명 또는 시대적 상황을 천착하거나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연도(북경)에서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는 광범한 자료를 섭렵한 연구자가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공이 고려에 도착한 연대는 비문에 의하여 泰定年間임은 확실하나 좀더 정확한 시기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1326년 3월에 城西의 甘露寺에 도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보다 1년 후에 고려에 도착하였다고 정리된 사전도 있으므로 이를 따른 논문도 있다. 지공은 1328년 8월 이후 연도로 돌아가 1363년까지 연도를 거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입적하였으나 논문 가운데 고려에서 입적하였다는 견해도 있었다. 지공이 고려인이라 정리된

증보문헌비고와 대정신수대장경 등이 있을 정도이므로 이러한 오류를 자세하게 열거하기가 번거로울 정도이다.

입적한 年月은 이색이 지은 지공 비문에 실려있고 1363년 11월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20일에 입적하였다는 목은문고본과 이를 토대로 선집한 東文選本과 重立碑는 일치한다. 지공의 원비에 토대를 둔 李能和本과 權相老本에는 29일이 入寂日이다. 이 부분의 原碑片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아쉬움은 있으나 문집본보다 정확하다고 하겠다.

지공의 세속계보와 사상적 계보는 한국에만 전해 오는 禪要錄과 지공이 남긴 譯經의 서문 등에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나란다 및 스리랑카에서 수학과 득도한 사실과 계승에 대해서는 어느 자료보다 자세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현재의 상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음이 아쉬웠다.

지공의 인도와 네팔, 그리고 중국에서 遊歷에 대해서는 지공의 행록을 수록한 이색의 비문이 가장 자세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언급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운남지역의 유력에 대해서는 깊이 있고도 사실적인 현지조사가 뒷받침되었다. 다만 인도와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공의 활동과 현존하는 유적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거의 뒷받침이 못된 아쉬움이 있었다.

지공이 동아시아로 진입한 경로에 대해서는 유력의 과정과 상통하였다. 그의 진입로는 당대초반에 주로 이용하였던 실크로드와 인도의 서북 카쉬밀을 연결한 육로가 아니었고, 義淨이 이용한 남중국에서 말라카해협을 지나는 해로도 아니었다. 당대 후반에 열렸던 티베트를 거치는 중간 통로였다는 지공비문에 인용된 行錄을 따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채로운 견해는 미얀마와 치앙마이를 거쳐 시쌍반나를 통하여 대리와 운남을 거쳤다는 海路說이었다. 이 논문은 당시 인도 서북의 이슬람화로 이색의 행록은 실현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로설의 근거로 澹居考가 신빙성이 있다고 해로의 상황을 타진하였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주목받아 마땅한 특색 있는 착안이라 하겠다.

발표회에서 중국의 서남부와 인도의 지명에 관해서는 좀더 진척된 느낌이 있었다. 다만 인도의 지명에 대하여 인도의 현지 학자의 참여가 없었고, 스리랑카와 네팔, 그리고 티베트, 내몽고와 貴州의 학자가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더욱 컸다. 한국에서도 북한의 학자가 참여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 3. 1999년 小會議의 爭點과 解法

지공에 관한 쟁점에서 아직도 그이 出生年度와 세속의 계보, 그리고 나란다에서 수학에 대한 인도 현지에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가 지나온 여러 지역과



만났던 인물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풍습, 그리고 地誌로서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가 원과 고려에서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남아시아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좀더 진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1999년 운남성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회의에서 지공이 지나온 북인도의 지역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이에 의하면 지공은 인도의 서북에서 네팔과 티베트로 이동하지 않고 카슈미르를 지나 天山北路의 火焰山을 거쳤다고 해석하였다. 중국의 서북에는 특이한 지형이 많고, 지형마저 같은 지역도 적지 않다. 火焰山을 식킴(sikkim 불의 신화가 있는 왕국, 지금 인도의 영토로 편입됨)으로 해석하는 통설과 달리 天山北路에 위치한 火焰山이라는 해석이었다.

소회의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지공의 사상이 밀교와 관련되었느냐는 문제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공이 번역한 진언이 소개되었으므로 밀교적 요소가 강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았으나 필자는 이를 부정하였다. 운남성의 불교는 唐代에 티베트의 불교와 토착신앙이 결부된 밀교적 요소가 강하였으므로 지공의 불교도 같은 특성이 강하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었다. 이와 달리 그의 사상에는 밀교적 영향이 짙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시되었고, 소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필자는 1998년 6월, 아직 초여름이지만 사막의 더위를 맞보면서 천산북로의 화염산을 지났으나 이색이 지공비문을 지으면서 이용한 行錄과는 다른 인상을 받았다. 이색의 비문에는 하늘에 맞닿은 산맥과 사다리로 만든 다리(懸橋)를 말하였으나 멀리 祁連山脈이 보일 뿐이고 티베트로 연결되는 지형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공이 지나왔던 북인도와 티베트, 그리고 양자강 상류의 金沙江 등은 인류의 마지막 비경이고 唐과 元으로 동북인도와 마지막으로 불교문화가 교류한 지역으로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산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연구의 새로운 地平을 향하여

지공은 13세기초 인도와 스리랑카의 불교사상을 저술과 실천으로 동아시아의 고려에 집중적으로 전하였다. 경유한 지역에 관해서 적지 않은 내용을 전하는 그의 비문은 중요한 地誌의 자료이다. 그가 남긴 문헌과 그와 관련된 유물은 한국에서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된 사례가 많다.

지공에 관한 연구는 14세기의 고승을 국제학술회의로 부각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원은 유라시아에 걸친 대영토와 다수의 칸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대몽고라는 기치아래 수많은 군인과 무역상, 종교인, 그리고

사명을 띤 사신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다만 이들이 남기거나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못할 뿐이다.

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걸친 지공의 발자취는 원대에 유우라시아를 누볐던 다른 여행가와는 다른 특색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가톨릭문화권의 유럽이나 이슬람권의 중동에서 원의 수도였던 燕都를 왕래하였고 원의 도사가 원정군을 따라서 유럽에 발자취를 남긴 사례였다. 마르코폴로가 가톨릭의 포교를 위한 사신을 수행하였고, 라반서마가 이슬람권에서 연도에 다녀갔다. 도교의 도사로 長春真人 劉秉忠이 유럽의 원정군에 합류하여 기록을 남겼다.

지공은 남아시아에서 불교의 포교를 위하여 동아시아를 유력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주목받은 다른 여행가와는 달랐다. 그는 단순한 여행이나 遊歷이 아니라 포교를 위하여 고려에 3년간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 가장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기었고, 여행이나 유력으로 그치지 않았고 짧지 않은 남은 여생을 연도에서 마쳤다. 이러한 지공의 특성을 당시의 다른 여행가들과 비교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지공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출생연대와 세속의 계보, 그리고 나란다와 랑카(楞伽國)에서 수학한 스승의 학문적 특성과 사실성을 들 수 있다. 그가 지나온 여러 지명과 만났던 인물,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풍습과 地誌로서 가치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동남아시아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천착된 연구가 필요하다.

지공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향에서 더욱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 그의 생애와 유력한 지역에 관한 연구도 인도와 스리랑카, 네팔은 물론 원의 중심지였던 燕都和 티벳에 이르는 각지의 연구가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한국에서도 휴전선 너머의 개성과 금강산과 묘향산은 그의 유적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그는 고려에서 가는 곳마다 부처나 달마가 환생하였듯이 환대를 받으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으므로 앞으로 좀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에 해인사에서 발견된 불복장 자료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자료가 속속 증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에 관한 불교계의 인식과 연구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는 생애의 중반과 후반을 중국에서 대부분을 보냈고 특히 연도의 法源寺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다. 한국에서는 法源寺에서 간행된 禪要錄을 重刊하였음이 확인되지만 아직껏 중국에서는 그의 저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아쉽다. 필자는 두 가지 방향에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나는 원대의 불교계가 일반적으로 지공의 사상에 대해서 고려보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관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가 남긴 유적과 유물이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학계가 불교의 일부분인 그의 유적과 유물에 관심을 적게 기울인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북경보다 앞서 짧은 기간 머물렀던 운남성에서 지공의 탑과 기념비를 세우고 한중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특기할 현상이라 하겠다.

지공의 유물이 밀집되고 비교적 보존이 잘된 한국에서도 그에 관한 연구는 호기심의 단계를 지나 이제야 집중적인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불교계의 관심이 강화되고 많은 문헌자료와 영정 및 유적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었다. 그가 조선시대의 불교계에서 의식과 승배의 중요한 대상이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불교사에서 깊이 있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뿌리를 가진 문화란 자신의 주변이나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생명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장 비참한 문화는 이해와 흥미, 체계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몸짓과 소리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감성에 머물면서 사라지는 현상이라 하겠다.

지공의 저술과 실천적 계율을 그의 사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불교계에 새로운 주제로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가 번역한 無生戒經과 저술한 禪要錄, 그리고 그의 문도들이 보여준 그의 실천방향은 戒定慧의 三學에 토대를 둔 초기 선종과 상통하며 사상이란 항상 영원한 원초성에 뿌리를 두고 현실을 살아가는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맺음말

思想家와 聖人の 가르침은 有感스럽게도 확장 과정에서 군사력을 내세우면서 침략을 同伴하는 사례가 많았다. 오로지 釋迦의 가르침은 知識과 平和를 渴望하는 남부아시아와 동아시아의 學僧들에 의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險峻한 地形을 克服하고 동아시아로 전파하였다. 동아시아의 孔子와 老子의 思想이 南아시아로 傳播하지 못한 사실은 매우 이상하다.

지공은 지금까지 확인된 印度 知性の 搖籃이었던 나란다대학의 최후의 졸업생이었다. 그는 나란다에서 얻은 지혜의 불씨를 스리랑카의 頂音庵에서 등불로 키워서 동아시아로 옮겨왔으며, 그의 사상은 곳곳에서 호응과 排斥의 상반된 反應을 받았으나 오로지 炯黔(雲南과 貴州)과 고려에서만 始終 熱烈하게 그의 사상을 받들었고, 특히 고려의 후신인 한국에서는 그의 초상화와 塑像과 浮屠, 그리고 그의 저술과 글씨를 보존하면서 오늘날까지 숭앙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의 사상가 老聃은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포용성이 남성적인 꾀꾀함과 공격성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공에 대한 고려 여성신도의 지원과 옹호는 적극적이었다. 그가 雲南地域과 韓國에서 공통적으로 추앙을

받았고, 한국과 운남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의 여성학자가 4 인이나 참여하였다. 한국과 운남의 自然環境은 공통적으로 매우 아름다우며, 佛敎의 精神은 生命을 尊重하고 慈愛로운 女性의 母性으로 平和守護運動과 自然保護運動을 先導하였다.

아름다운 自然을 保存한 雲南과 멀리 韓國에서 指空을 극진히 받들었던 까닭도 우연이 아니다. 지공의 思想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간단히 줄여서 말한다면 武力보다 平和를, 男性的인 굳셈보다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自然을 존중하는 生命 사상으로 정리된다. 이는 곧 佛敎의 慈悲心과 直結된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이미 通度寺와 檜巖寺에서 지공이 포함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운남에서 처럼 대규모로 지공을 단일한 주제로 發表會를 갖기는 처음이었다. 지공이 득도하였던 스리랑카는 물론 교화를 위하여 경유하였던 印度의 각지와 네팔, 그리고 中國의 北京, 內蒙古, 티베트, 貴州, 泗川, 湖南, 遼寧과 韓半島의 平壤에서도 同學들이 전혀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앞으로 학술회의에서 극복될 필요가 있었다. 韓國에서 開催할 때에는 일본과 미국 등 지공에 관한 자료를 보유한 여러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生命을 존중하고 自然을 보호하는 指空의 平和 思想에 따라서 단결과 우호, 그리고 信義를 擴大시킴으로써 앞으로 文化의 交流와 觀光資源의 活用, 그리고 經濟的 協力을 促進시키는 契機로 발전되리라 확신할 수 있다.